

보도시점 (전매체) 10. 14.(월) 14:00

총 상금 15억원, K-스타트업 '진검승부' 돌입

- 「도전! K-스타트업 2024」 11개 예선리그에 총 6,238팀 신청, 평균 30대 1의 경쟁을 뚫고 통합본선 진출 210팀 확정
- 앞으로 2개월 간 통합본선-왕중왕전을 거쳐 총 상금 15억원, 대통령상·국무총리상·장관상의 주인공 20팀 선발 예정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「도전! K-스타트업 2024」 11개 예선리그가 마무리됨에 따라 14일(월) 서울창업허브(서울 마포구)에서 통합본선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최종 20팀을 선발하기 위한 통합본선-왕중왕전에 돌입했다.

* 예선리그 참여부처 : 중소기업부(주관)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방부, 문화체육관광부, 환경부, 여성가족부, 국토교통부, 방위사업청, 특허청

중기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에서 지난 1월 29일 통합공고를 통해 예선리그 별로 (예비)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총 6,238팀이 신청하였고, 이중 210개팀이 평균 30: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통합본선 무대를 밟았다.

* '23년 6,187팀 신청, 200팀 통합본선 진출(31:1)

「도전! K-스타트업」은 2016년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해 현재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유망 K-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.

작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(주)유니컨은 커넥터·케이블을 대체하는 초고속·초소형 반도체 커넥티비티(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)를 개발하여 퀄컴, 로젠버거 등 글로벌 기업과 PoC*를 진행했고, 140억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.

* Proof of Concept : 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것

우수상을 받은 (주)네이션에이는 생성형 AI 기반 3D/4D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(SaaS)로 2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, CES2024 혁신상 (2개 부문)을 수상했다.

또한, 우수상 수상기업인 (주)토틸은 전기차 폐배터리 진단과 해체를 위한 인공지능 로봇 완전 무인 자동화 솔루션으로 CES2024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.

한편, 이번 통합본선에 진출한 210개 팀은 10월 29일부터 4일간의 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 30팀으로 압축되고, 12월 왕중왕전에서 최종 20팀을 선발하여 대통령상 등 상장 20점과 상금(총 15억원)을 시상하며 대회가 종료 된다.

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“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신청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 분위기 확산을 느낄 수 있었다.”면서 “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에서도 힘을 보태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왕중왕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K-스타트업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창업정책관실 신산업기술창업과	책임자	과 장	이준희 (044-204-7640)
		담당자	사무관	이학준 (044-204-7648)
			주무관	강대곤 (044-204-7666)



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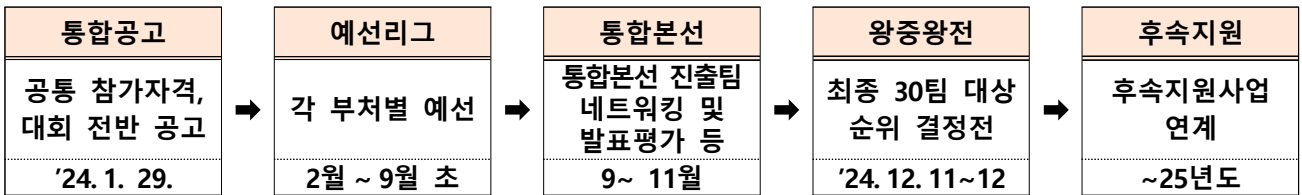


참고

도전! K-스타트업 2024 개요

- (목적)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(예비)창업팀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, 포상하여 親 창업 분위기 확산
- (예산) '24년 21.15억원 ('23년 21.15억원)
- (지원대상) 예비창업자(팀) 및 3년 이내 창업기업
- (운영일정) '24. 1. 29. ~ '24. 12. 31.

< 2024년 도전! K-스타트업 운영 일정(안) >



< 2024년 도전! K-스타트업 운영 체계도 >

